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0:4)

부지런한 자의 밭에 잡초가 없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세상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하셔서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농사꾼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애쓰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주부들이 ‘청소한 티는 안 나지만, 그렇다고 청소를 안 하면 집안이 난리가 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며칠 안 치워보십시오.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빨랫감이 쌓이고, 설거지거리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무질서로 변합니다. 몇 년 방치해놓은 집을 보세요. 거미줄이 끼고, 벽에 금이 가고 음침한 곳이 됩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이나 밭을 그대로 두면 잡초가 뒤덮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만 놔두면 무질서하게 되고,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집이나 쓸 만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 즉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기쁜 땅에서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잠 24:30~32).

여러분, 솔로몬이 잡초가 뒤덮인 밭을 보고 생각이 깊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잡초가 뒤덮인 자신의 인생을 보고 생각이 깊어야 하고,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을 터, 그 원인이 성경에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잠10:4),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잠10:26), 남의 부림을 당할 것이고(잠12:24),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잠15:19), 구걸해도 얻지 못할 것이고(잠20:4), 패가망신할 것이며(잠18:9), 굶주릴 것이고(잠19:15), 쇠퇴할 뿐더러(전10:18),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마25:26~30). 모두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먼저 먹이를 찾는다

가난하게 되는 것은 가만있으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면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일해야 합니다. 나약하게 되고 병이 드는 것은 가만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되려면 부지런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과 약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추해지는 것이요? 가꾸지 않고 가만있으면 저절로 추해집니다. 주름도 깊어지고 불쌍사납게 됩니다. 무식

해지는 것도 가만있으면 됩니다. 책도 읽지 않고, 신문도 안 보고 그러면 저절로 무식해집니다. 그러나 유식하고 지식을 갖추려면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면 됩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해야 인생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잡초를 뽑아줘야 곡식과 열매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잡초는 한 번 뽑는다고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뿌리도 강하고 성장도 빨라서 계속 뽑아줘야 하고 완전히 뿌리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반쪽 부지런을 떨 것이 아니라 매일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삶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고 (잠10:4), 사람을 다스리게 되며 (잠

12:24), 마음의 풍족함을 얻고 (잠13:4),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요 (히6:11).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꼭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핑계도 많고 다양합니다. 하긴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을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부지런한 자들은 핑계나 변명 대신 방법을 찾지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부지런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에 일어나 모리아 산을 찾았고, 야곱도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발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창31:40)라고 고백할 정도로 부지런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으며, 요셉도 풍년시기에 부지런히 창고를 채워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엘리

야도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왕상19:10)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했고, 다윗 역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시 119:148). 사도 바울의 사역도 기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살전2:9).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 동안 쉬신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셨으며 밤이 되

면 다 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나이든 분들도 뭔가를 배워야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운동도 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뇌도 녹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면 다이어트가 절로 되고, 건강해집니다. 부지런히 건강식도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신에게 인색하지 말고 좋은 것을 찾아드셔야 합니다. 저도 요즈음은 열심히 비타민제도 챙겨먹고, 생식도 먹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부지런한 만큼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음의 밭에 난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잡초는 부정과 불평불만, 교만과 거짓 등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인생은 엉겅퀴와 가시로 뒤덮이고 말 것입니다. 이것들이 자라고 있으면 절대 긍정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겸손과 진실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왜 자랄까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게을러서 교회에 오지 않

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죄가 자라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는 길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지런을 떠는 길밖에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상고하여 잡초를 뽑아내고 거기에 성령의 씨를 뿌리면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이런 자는 산 위의 등불과 같아 모든 자들을 비취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워라

하나님은 마음 밭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를 마지막 때에 다 불사르신다고 경고하십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히6:7~8).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6~18)는 말씀대로 삽시다. 부지런히 기뻐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감사하면 마음 밭에 잡초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단체 안에 잡초 같은 자가 있으면 뽑아내야 합니다. 그 자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자 안에 굴 하나가 썩으면 굴 전체가 썩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자, 부정적인 이야기를 당구알 굴리듯 하는 자들을 단체에서 뽑아내야 그 단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한 자는 시험 때가 와도 여유가 있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저축을 해놓은 자는 어려울 때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누굴 만날 때도 부지런한 자는 빨리 가서 여유 있게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삶은 부지런한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제 좀 더 자자, 좀 더 늙자 하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십시오. 때를 아끼십시오. 부지런보다 큰 자산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용달샘 ::

인간존중의 금언(金言)

지난 10년 전부터 매년 초 서울대 소비 분석센터가 내놓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가 있다. 그 한 해 대한민국의 소비패턴을 미리 내다보며 지어진 책인데, 그들은 2018년을 이끌 트렌드에 대한 키워드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를 제시했다. 이미 지난 세기말부터 미래학자들은 인터넷이 가져올 미래세계를 예측하며 그동안 역사 속에 숨죽여왔던 일반 대중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그로인해 개인의 자유로운 개성이 소비 트렌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주목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문, 방송 등의 주력언론들이 사회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왔다면, 급속한 네트워크의 진보로 인해 지금은 오히려 개인들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마음껏 표출해내는 생각, 말들이 이슈에 따라 이합집산해가며 기성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 이 나라를 휩쓸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이나 K항공사 그룹 오너일가의 그릇된 갑질 파문으로 들끓고 있는 여론 등, 예전에는 미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는 시쳇말로 정말 ‘한방에 훅 간다’는 표현을 절감하게 한다. 가히 혁명적이다. 한때는 1인 영웅시대로 그 이하 수많은 대중은 숨죽이며 따라가거나 새로운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렵도 없는 소리다. 수많은 대중의 다양한 의견과 개성들을 무시하고는 더 이상 사회를 리드하거나 관리해갈 수 없다. 그런데 미투운동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커다란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이를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로 몰아가거나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대립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그런 접근으로는 이러한 사회갈등을 치유할 동력이 확보될 수 없다. 오히려 사회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사회 갈등적 측면보다는 이런 현상의 기저에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인간존중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과 존중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인간본능이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시대와 맞물려 분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무한 네트워크는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그 어느 때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고, 그 파급력으로 정말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하고 경청하는 사회의식의 발전만이 이러한 갈등들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눅6:31). 내가 중한만큼 남도 중히 여기라는 말씀이다. 모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인간존중의 금언(金言)이 아닐 수 없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 세상을 보는 창 ::

주님의 반사체

미국의 100달러 지폐에 얼굴이 있을 만큼 매우 존경받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동네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집 앞에 선반 하나를 만들어 그 위에 등을 올려놓고, 날이 어두워지면 그 등에 불을 켜두는 일을 했다. 처음에는 동네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등을 집 안에 두고 불을 밝혀야지, 왜 밖에다 켜놓는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집 밖에 켜둔 등불로 인해 길이 환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도 하나 둘씩 자신들의 집 밖에 등불을 켜두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고도화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어른이 사라지고, 어른에게 배우던 지혜는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가정이 무너지며 급격한 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울증과 자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등 사회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부자는 많아도 깨끗한 부자가 없고, 지도층은 있어도 존경할만한 사람이

없다. 물질주의 사회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며, 고독사, 안전 불감증에 노출되어 사는 게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다.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관계회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주님은 빛을 직접 내시는 발광체(發光體)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빛을 내는 반사체(反射體)이다. 주님은 발광체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반사체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 보름달이 아무리 밝다 해도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태양이 내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다. 해바라기의 가장 큰 특징은 햇빛을 따라서 움직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주바라기’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반사체가 되어 빛을 발하며 살아보길 소원한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성형

요즘 ‘부모님 날 낳으시고 의느님 날 만드셨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히 성형 왕국에서나 나올 법한 말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세상 인지라 성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 해서 이를 손상시키는 일을 불효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했으니 의식도 변하는 것이 당연지사일 겁니다. 오늘은 칼 대지 않고 마취 없이 하는 성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성령의 성형법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얼굴이 변합니다. 이시대 목사님의 친구들이 젊은 시절 우리 목사님을 보고는 ‘참 인상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

치켜 올라간 눈은 내려오고, 입 꼬리가 올라가며 인자하고 온화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술 담배를 끊고 마음에 평안이 오니 피부도 엄청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려고 할 때와 예수를 만난 후의 모습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성령으로 성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외모는 내면의 것이 반영되는 것, 아무리 최고의 성형 전문가에게 성형을 받았다고 해도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냥 인형에 불과하지요. 성령의 성형은 내면을 수술해서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게 하는 것이니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성형, 받고 싶지 않습니까?



:: 연단을 넘어 ::

부지중의 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남자다운 인상 덕분에 지하철 잡상인들을 쫓아내는 부서에 차출되었다. 선임이 역사 내에서 장사하는 잡상인들을 고압적인 말과 험한 말로 쫓아내는 시범을 보여주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을까. 나는 잡상인들에게 들어온 민원을 설 명해드리며 설득해갔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렸다. 근데 유독 몇 분이 몰래 다시 돌아와 계속 장사하였다. 그 중 특별히 끝까지 버티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듣는 둥 마는 둥하시며 “총각, 이쁘게 생겼네. 결혼은 했구?” 하며 계속 말을 돌리셨다. 결국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우선은 이거 갖고 점심 드시고 이따 오세요. 제가 근처에 장사하기 좋은 장소 알아다가 알려 드릴게요.” 하며 수중에 있던 내 점심 값이 자전 재산, 만원을 드리며 보내드렸다. 그리고 한주 후, 주일이 되어 노숙자와 어르신들을 모시는 3부 예배를 드리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 총각!” 하고 누군가 불렀다. 그 할머니이셨다. “아니, 이쁜 총각이 여기 어쩐 일이어?”, “할머

님, 저도 이 교회 다녀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날 총각이 쥐어준 만원이 너무 고마워서 오늘 총각 잘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총각도 이 교회 다녔어? 역시 우리 교회가 최고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최고야.” 하며 내 손을 붙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게 아닌가. 순간 어절했다. 사실 난 지난 한 주간 갈등했다. 말을 잘 안 듣는 분들 때문에 추운 곳으로 빈 책상을 끌고 나가 자리를 지키며 한편으로 ‘나도 그냥 선임이 가르쳐준 대로 조금 세계 나가고 편하게 근무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순간 히브리서 말씀이 머리에 올랐다. ‘부지중에 나(천사)를 대접하는 자가 있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주님 앞에서 게 되었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들게 될 말이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징계의 음성으로, 누군가에게는 칭찬과 자랑의 음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칭찬의 면류관을 받는 삶이 되자. **이은총 전도사**
unjena7@hanmail.net

중보기도의 힘

대학시절, 지인들과 차를 타고 가다 교통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들이 제 좌석이 구겨진 것을 보고 아마도 제가 죽었을 거라고 얘기했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고, 알고 보니 사고가 난 같은 시각, 하나님께서 지인에게 꿈으로 급히 계시하셔서 사고를 막도록 급히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를 위해 기도해준 동역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지 않고 그 순간 무릎을 꿇었던 지인에게 참으로 감사한 순간이었지요.

이후 저도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생각지 않은 성도를 위한 기도가 흘러나오거나 정해진 기도시간이 아님에도 급히 기도의 감동이 오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시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때문이지요. 저 같이 작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도 그런 기적이 이루어졌으니 이는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고도 필요한 섬김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

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다짐했고(삼상 12:23),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기도했으며(창18:16~33), 스테반은 순교의 순간에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기를 중보했습니다(행7:60).

특히, 욥의 경우 자신의 가족, 재산, 건강을 다 잃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조차 자신을 정죄할 때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을 질책하는 죄를 지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순간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욥42:10)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욥의 회복은 욥의 진실하고 순결한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결과이지만 그 시점만큼은 친구를 위해 중보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사역 당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눅22:31~32) 하심은 물론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니

중보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마 22:37~40). 중보기도는 어쩌면 이 두 가지 계명을 함께 이루는 거룩한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루 24시간 빠듯한 시간 속에 자기의 필요를 내려놓고 먼저 타인을 위해 기도하니 참된 이웃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중보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모든 필요가 흔들려 넘어 넘치도록 더해질 것을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요17:20).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10여 년 전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방목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하여 벼랑을 향해 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손 쓸 틈도 없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려 450마리의 양이 절벽 위에서 떨어져 죽고, 1,000마리가 넘는 양들이 다치는 대

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했는데, 양은 지극한 약사라서 혼자서는 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목자의 인도함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던 양떼들처럼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길을 잃은 양떼들과 같은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

신 법이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심판을 통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한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이 땅에서도 지켜줄 것이며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섬기는 리더십!

어느 교회에서 가족화합 찬송가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만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킁킁대며 웃었고 찬송을 부르던 집사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목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긴장한 탓인지 이번엔 목사님이 가사를 틀리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인들이여 기저기서 킁킁대며 웃을 때 좀 전에 찬송가사를 틀리게 불렀던 집사님도 환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찬송 경연대회는 끝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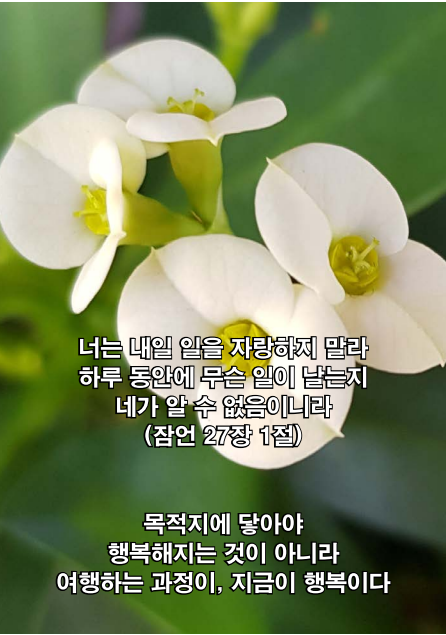
세월이 얼마 흐른 후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장로님들과 사모님이 함께 유품을 정리하다 목사님의 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날짜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찬송가 부르기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님 가정이 찬송가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온 교인들이 웃자 김 집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발갛게 변했다. 그 다음 차례는 우리 가정이었다. 나는 일부러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온 교인들이 웃었다. 가사를 틀리게 부른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목사님도 틀리는데 나쯤이야.’ 하는 미소를 짓는다. 나는 오늘 하나님만 알게 김 집사를 기쁘게 해주었다.” 이 일기의 내용이 알려지자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에 온 교인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이 가슴 뭉클한 목사님의 일기처럼 우리의 삶도 정리되는 그 날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는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설득과 감화와 동기부여를 잘 해야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더 잘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함께 보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성경적 리더십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4~15)는 우리 주님처럼!

김정욱 전도사
jcc0115@naver.com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에 밟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

목적지에 달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이, 지금이 행복이다

함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중국 국경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 노인에게는 아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그만 오랑캐의 땅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다.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했지만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몇 달 뒤 도망쳤던 말은 암말 한 필을 데리고 나타났다. 사람들은 노인의 말이 맞는다며 축하했으나 노인은 ‘이 일이 화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얼마 뒤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낙마하여 다리가 부러졌다. 사람들이 위로하였으나 노인은 ‘이 또한 복이 될 수 있다’며 크게 요동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난 후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났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에 나갔지만 다리가 다친 노인의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됐다.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한다. 살다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이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 때마다 너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나는 새옹지마가 함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임신성당노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혈당수치가 높으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참 감사한 일이다.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의 식습관이 더욱 건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한 입덧시기가 지나고 평소 먹지 않았던 단 음식들, 군것질을 많이 했었다. 여자들은 평생 숙제가 다이어트라고 할 만큼, 살면서 다이어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임신 중에는 ‘아이가 먹고 싶어서’라는 핑계로 살릴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껏 먹게 된다. 그래서 나도 안일했던 것 같다. 임신성당뇨라는 진단을 받은

후 하루 4번씩 혈당 체크를 해야 해서 힘들기는 하지만 다행히 음식 조절과 운동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운동을 하며 관리하고 있다.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뱃속에 태아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이까지 모두 건강한 식습관으로 다 같이 건강해지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건강하려면 평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한 끼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곤 했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다. 아내, 그리고 엄마인 나에게 가족의 건강이 달려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이처럼 함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번 일을 통해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정효경
happy_holly@naver.com